

##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 및 양육방식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 한국과 미국 아버지를 대상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Generative Fathering and Parenting  
Styles by Korean and American Fathers

이 영 환\*\*  
Yee, Young Hwan

###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generative fathering and parenting styles of 90 Korean and 73 American fathers who had a child 3 to 5 years of age.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on generative fathering, parenting styles,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Results showed that Korean fathers were more involved in child rearing and perceived their parental responsibilities more strongly than American fathers; American fathers showed authoritative parenting and Korean fathers showe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s; among American fathers, the warmth factor contributed to the closeness between father and child; among Korean fathers, the control factor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conflict between father and chil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function of father's control in child development might vary by cultural contexts.

**Key Words** : 생산적인 아버지노릇(generative fathering), 양육방식(parenting style), 아버지-자녀관계(father-child relationship)

---

\* 접수 2001년 9월 30일, 채택 2001년 10월 15일

\* 이 연구는 1999년 전북대학교 학술진흥재단 연구비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주거전공 부교수, E-mail : yyh3838@moak.chonbuk.ac.kr

## I. 서 론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부모의 자녀양육을 엄부자모(嚴父慈母)로 특징짓는다. Osgood의 인류학적 문헌에서는 “아버지는 훈육의 상징으로서 엄한 존재이며. . . 아버지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아이들은 무서운 아버지를 피하여 어머니에게 구원을 요청하려 달려가는 엄부자모의 전형적인 형태(Lamb, 1995, p87)”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녀들이 보는 이상적인 아버지는 친밀한 아버지, 평등한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는 아버지(곽배희·최은정, 1997)로 나타난다. 아버지노릇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와 대조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갖는 서구사회에서의 아버지 노릇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은 물론 서구사회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이 어머니와 비교해 볼 때 자녀 양육의 실제에는 많은 시간을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동학 연구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의 아버지 연구에서는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을 위해 어머니와는 또 다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의 부족을 아버지의 기능적 부재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이영환·이진숙·조복희, 1999)고 주장한다. 아버지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곽배희·최은정, 1997)이며, 아동이 보는 바람직한 아버지의 모델도 부양자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소(정

순화·김시혜, 1996)이다. 이러한 요인은 아버지노릇을 자녀양육 참여시간의 양으로만 측정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해 주기 위해 아버지가 직장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자녀양육 참여시간은 어머니에 비해 부족하지만,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자녀양육 참여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최근 Snarey(1993)는 아버지의 역할수행 및 참여를 에릭슨의 생산성의 개념에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Erikson의 인간발달 단계 중 7단계인 생산성 단계는 예술 작품의 창조나 사회의 발전에도 모하는 것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녀 양육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고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이란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다. Snarey에 따르면 좋은 아버지노릇이란 “단순히 사회적으로 규정된 아버지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포괄적이며 대체될 수 없는 힘든 일(Snarey, 1993, p15)”이다. 이러한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에 대한 개념은 “아이를 돌보고 아이와 놀아주는 것은 노동이어야 하며 아버지의 육신과 정신에 느껴지는 피곤함과 힘겨움이며. . . 아버지가 아이를 힘겹게 돌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는 출발(이강욱, 2001, p.63-65)”이라는 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노릇은 자녀양육 참여 뿐 아니라 아버지가 가족에게 잠재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물질적 자원이나 정신적 자원을 포함하는 생산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국과 미국의 두 문화에서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편 부모자녀 관계 연구에서 양육참여의 양

적인 측면 뿐 아니라 양육방식 또한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 왔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부모의 태도 및 행동의 다양성과 패턴을 밝히려는 시도를 해왔다. 특히 Baumrind(1971, 1991)의 개념에 기초를 둔 '권위있는 양육'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 적절한 자율성 부여, 분명하고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을 특성으로 하며, 미국 문화에서 아동을 성공적으로 사회화할 수 있는 양육으로 인식되어 왔다(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 1999). 그러나 가족이 처한 사회 환경에 따라 양육방식과 아동의 발달적 결과 간의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Darling & Steinberg, 1993)는 연구가 보고되면서 중류층 서구 문화 기준에 근거한 양육행동의 개념화가 다른 문화에서도 일반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천희영(1998)은 아시아의 부모는 서구문화의 부모에 비해 권위주의적, 통제적 양육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아시아 문화의 맥락에 비추어서 통제적 양육의 의미는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모의 양육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맥락과 관계없이 서구적인 Baumrind의 개념에 근거한 권위적/권위주의적 양육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그의 개념에 근거한 권위적/권위주의적 양육 유형의 각 정의에 내재된 부모역할 수행의 인지적·행동적 특성이 서구와 아시아 문화맥락

에 비추어 달리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복희 등(1999)은 가족이 처한 사회 환경에 따라 양육방식과 아동의 발달적 관계는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측정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온정과 통제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는 부모의 자녀양육방식 척도를 개발하였다. 조복희 등(1999)이 개발한 이 양육방식 척도는 Baumrind의 기본 모델을 기초로 하여 한국문화에 맞게 개발된 척도이므로 한국과 미국 부모의 양육방식을 비교하는데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생산적인 아버지노릇과 자녀양육 방식이 아버지-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과 미국의 두 문화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은 한국과 미국문화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2. 아버지의 자녀양육 방식은 한국과 미국문화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3. 아버지-자녀 관계는 한국과 미국문화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4. 양육방식에 따른 유아-아버지 관계는 한국과 미국 문화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5. 생산적인 아버지노릇과 아버지-자녀 관계는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3-6세 자녀를 둔 한국과 미국의 아버지 163명이다. 미국 아버지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주의 스테이트컬리지

지역을 중심으로 8군데 유아원(preschool)에 4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73부의 자료가 회수되었다.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연구대상 아버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연령의 유아와 유아의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가족으로

서, 유아의 아버지가 생물학적인 아버지인 경우로 한정하여 자료에 응답하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회수된 자료의 인구학적 변인을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 아버지의 86.5%. 어머니의 경우 67.9%가 대졸 이상의 학력이었다. 또한 60%의 아버지가 대학에 관련된 직업(교직원, 학생 등을 포함)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이러한 배경은 질문지조사가 진행된 미국 스테이트칼리지는 시골이지만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이 위치하여 경제·사회·문화가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판단되었다. 미국의 연구대상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도시인 전주지역을 선정, 대학부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15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93부를 회수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 분		한국 명(%)	미국 명(%)
유 아	출생순위	첫째 42(47.2) 둘째이하 47(52.8)	29(40.3) 43(59.7)
	성 별	남아 52(57.8) 여아 38(42.2)	47(64.4) 26(35.6)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이하 20(24.1) 전문대졸 6( 7.2)	7( 9.7) 1( 1.4)
		대졸 57(68.7)	64(88.9)
	생활수준	하 21(39.5) 중 52(62.7) 상 10(12.0)	10(14.5) 34(49.3) 25(36.2)

## 2. 연구도구

### ① 생산적인 아버지노릇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영환·이진숙·조복희(1999)가 개발한 ‘생산적인 아버지노릇’ 척도에서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영역과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 영역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버지의 유아교육기관 참여 정도를 묻는 문항을 첨가하였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영역은 자녀의 인지, 사회적 발달을 지지해 주는 ‘발달적 지지’,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돌보기 및 지도’, 자녀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함께 하는 활동’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각각 11문항, 9문항, 6문항 등 총 26문항의 4점 리커르트 척도이며,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 영역은 9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의 유아교육기관 참여는 윤기영(1998)의 학부모 역할 척도에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 및 참여 정도를 묻는 5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5점 리커르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63$ 에서 .78의 범위를 보였다.

### ② 아버지의 양육방식 척도

아버지의 양육방식은 조복희 등(1999)이 개발한 온정 및 통제 두 차원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온정요인은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기꺼이 자녀양육을 수행하며, 자녀의 독립심을 인정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통제요인은 자녀에게 행동표준을 설정하고, 부모의 규칙과 기대에 자녀가 따르도록 지도 훈육하고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온정 20 문항과 통제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르트 척도이다. 척도의 신뢰도는 온정이  $\alpha = .87$ , 통제는  $\alpha = .71$ 이었다.

③ 유아-아버지 관계 척도

Pianta와 Steinberg(1991)의 유아-교사 관계척도(Student Teacher Relationship Scale)에서 교사 대신 아버지로 바꾸어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Waters와 Dean(1985)의 애착 Q-Set을 근거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양육자-유아 관계를 파악하는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갈등, 친밀감, 의존성 등 3개 하위영역, 30개 문항, 5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갈등영역은 양육자-유아 관계가 적대적이고 조화롭지 못한 상호작용의 정도를, 친밀감영역은 양육자-유아의 온정과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를, 의존성영역은 유아가 양육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가 각각 .81, .77, .67로 나타났다.

III. 연구결과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 아버지의 양육방식, 아버지-자녀관계는 하위 영역 모두에서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과 출생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국가 간의 차이만을 비교 분석하였다.

와 미국아버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한국 아버지는 미국 아버지보다 자녀의 발달적 지지, 자녀 돌보기, 자녀와 함께 하기 등 양육 활동에 참여가 높았으며 유아교육기관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며, 자녀에 대한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도 높았다.

1.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은 한국과 미국문화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표 2> 한국과 미국 아버지의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의 차이

먼저 연구대상 아버지의 자녀양육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 본 결과 양육참여의 각 영역별 평균점수는 발달적 지지 2.83, 자녀 돌보기 2.43, 자녀와 함께하기 2.84로 나타났다. 가능한 점수 범위가 1~4점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대상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보통 이상이었다.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 평균 점수는 4.17로, 점수 범위가 1점~5점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대상 아버지의 책임감도 높은 편이었다. 학부모 역할수행은 2.57로 점수 범위가 1점~4점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보통 이상이었다. 한국과 미국 아버지간에 양육참여와 책임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모든 영역에서 한국아버지

영역	국가	평균(표준편차)	t 값
자녀의 발달적지지	미국	2.31(.39)	-14.03***
	한국	3.25(.44)	
자녀 돌보기	미국	1.92(.37)	-16.90***
	한국	2.85(.33)	
자녀와 함께하기	미국	2.45(.43)	-9.40***
	한국	3.17(.52)	
학부모 역할 수행	미국	1.96(.59)	-13.03***
	한국	3.27(.52)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지각	미국	4.07(.49)	-2.38*
	한국	4.25(.42)	

\* p<.05 \*\*\* p<.001

2. 아버지의 자녀양육 방식은 한국과 미국문화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한국 아버지와 미국 아버지의 온정 및 통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미국 아버지가 한국 아버지보다 온정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아버지의 온정 평균점수는 각각 2.87과 2.54로, 가능한 점수 범위가 1~5 점임을 고려할 때 두 나라 아버지 모두 보통 이하의 온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통제를 보면 한국 아버지가 미국 아버지보다 통제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아버지의 통제 평균점수는 각각 3.51과 3.37로, 가능한 점수 범위가 1~5점임을 고려할 때 두 나라 아버지 모두 보통 이상의 통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3> 한국과 미국 아버지의 온정 및 통제 수준의 차이

	국가	평균(표준편차)	t 값
온정	미국	2.87(.22)	8.15***
	한국	2.54(.28)	
통제	미국	3.37(.37)	-2.19*
	한국	3.51(.41)	

\* p<.05 \*\*\* p<.001

또한 본 연구에서는 Baumrind의 모델에 따른 한국과 미국 아버지의 양육방식을 비교해 보기 위하여 온정 및 통제를 직교하는 두 차원

으로 두고 온정의 높고 낮음, 통제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분류되는 4개의 집단을 구분하였다. 온정과 통제 점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각 평균+1/2표준편차 이상인 집단과 평균-1/2표준편차 이하인 집단으로 분류한 뒤, 온정과 통제가 모두 높은 집단(1), 온정은 높고 통제는 낮은 집단(2), 온정은 낮고 통제는 높은 집단(3), 온정과 통제가 모두 낮은 집단(4)으로 분류하여 한국과 미국 아버지들간에 양육방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미국의 아버지는 온정이 높은 집단, 특히 온정과 통제가 모두 높은 집단에 속하며 한국의 아버지는 미국의 아버지에게 비해 온정이 낮은 집단, 특히 통제는 높지만 온정은 낮은 집단에 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Baumrind 양육유형에 비추어 해석하면 미국의 아버지는 권위적 양육방식의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한국의 아버지는 권위주의적 양육방식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 3. 아버지-자녀 관계는 한국과 미국문화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아버지-자녀 관계의 하위영역인 친밀, 갈등, 의존성의 평균 점수는 각각 3.98, 2.15, 2.61점이었다. 척도의 범위가 1~5점임을 고려할 때

<표 4> 한국과 미국 아버지의 양육방식의 차이

구 분	양육방식 빈도(%)				합 계	비 고
	높은 온정 높은 통제	높은 온정 낮은 통제	낮은 온정 높은 통제	낮은 온정 낮은 통제		
국가	미국	31(21.1)	23(15.6)	5( 3.4)	8( 5.4)	$\chi^2 = 29.96^{***}$ df=3
	한국	25(17.0)	7( 4.8)	30(20.4)	18(12.2)	
합 계	56(38.1)	30(20.4)	35(23.8)	26(17.7)	147(100.0)	

\*\*\* p<.001

본 연구대상 아버지들은 갈등이나 의존적 관계 보다는 친밀한 관계로 보여진다. 세 영역에 있어서 한국 아버지와 미국의 아버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한국과 미국 아버지의 유아-아버지 관계의 차이

	국가	평균(표준편차)	t 값
친 밀	미국	4.03(.38)	1.75
	한국	3.91(.45)	
갈 등	미국	2.28(.56)	3.09**
	한국	1.99(.46)	
의 존	미국	2.47(.57)	-3.12**
	한국	2.79(.57)	

\* p<.05 \*\* p<.01 \*\*\* p<.001

<표 5>에서 보듯이 친밀감 영역은 한국의 아버지-자녀와 미국의 아버지-자녀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아버지는 한국 아버지보다 아버지-자녀관계가 더 갈등적이라고 지각한 반면, 한국 아버지는 미국 아버지보다 아버지-자녀관계를 더 의존적으로 지각하였다.

#### 4. 양육방식에 따른 유아-아버지 관계는 한국과 미국문화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양육방식과 아버지-유아관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2에서처럼 온정 및 통제를 직교하는 두 차원으로 두고 온정의 높고 낮음, 통제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분류되는 4개의 집단에 따라 아버지-유아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친밀, 갈등, 의존 등 모든 영역에

서 4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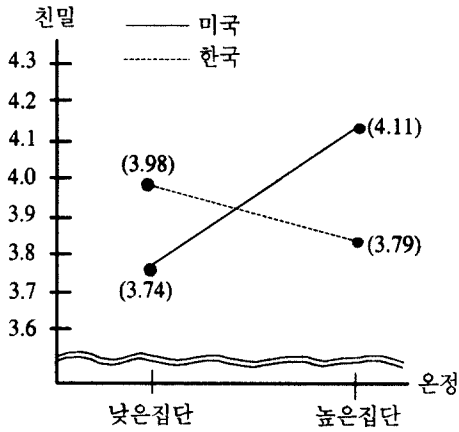
양육방식은 문화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려하여, 4개의 양육방식에 따른 아버지-유아 관계를 국가별로 분석해본 결과, <표 6>에서 보듯이 미국 아버지의 경우에서만 온정과 통제의 높고 낮음에 따른 4개 집단 간에 친밀감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미국 아버지들의 경우 온정과 통제가 모두 높은 집단과 온정은 높고 통제는 낮은 집단이 온정과 통제가 모두 낮은 집단과 온정은 낮지만 통제가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밀감이 높게 나타나, 아버지의 통제정도의 차이보다는 온정정도의 차이에 따라 아버지-자녀의 친밀감이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6> 온정 및 통제 차원에 따른 아버지-자녀간의 친밀감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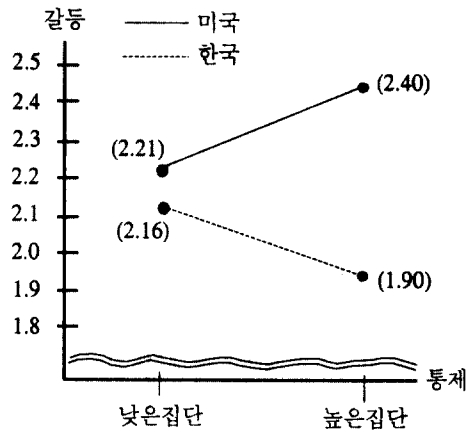
영역	대상	미국 아버지	
		평균(표준편차)	F 값
친밀	온정높 통제높	4.07(.37) a	3.41*
	온정높 통제낮	4.11(.38) ab	
	온정낮 통제높	3.65(.27) b	
	온정낮 통제낮	3.81(.25) b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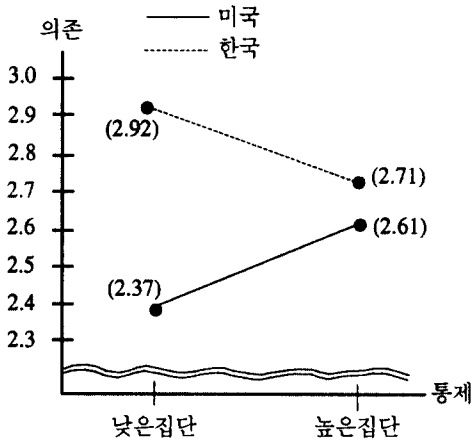
다음으로 온정과 통제 각각의 차원에서 아버지-유아관계의 친밀, 갈등, 의존 점수가 한국과 미국 아버지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와 통제, 국가와 온정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친밀감 영역에서는 국가와 통제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으나, 국가와 온정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갈등 영역에서는 국가와 온정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으나,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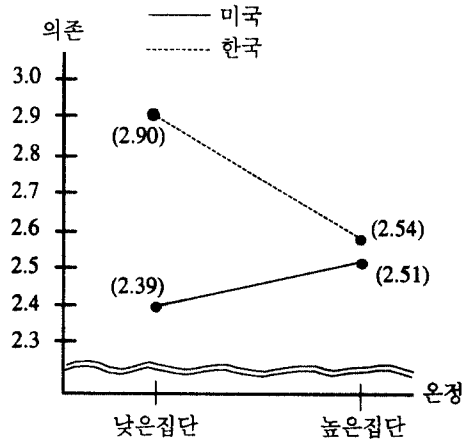
〈그림1〉 친밀 영역에서 국가와 온정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2〉 갈등 영역에서 국가와 통제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3〉 의존 영역에서 국가와 통제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4〉 의존 영역에서 국가와 온정의 상호작용 효과

가와 통제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의존 영역에서는 국가와 통제, 국가와 온정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먼저 양육의 온정차원을 보면, <그림 1>과 <표 7>에서 보듯이 미국의 경우는 온정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아버지-자녀 관계에서 친밀감이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온정 점수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아버지-자녀관계에서 친밀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그림 4>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 온정 점수가 낮은 집단의 아버지가 높은 집단의 아버지보다 자녀가 더 의존적이라고 지



각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아버지의 양육방식이 보다 온정적일수록 자녀의 의존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양육의 통제 차원을 보면 <그림 2>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방식에서 통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아버지-자녀관계에서 갈등이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표 7>에

서 보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미국의 경우는 통제가 낮은 집단에서보다 통제가 높은 집단에서 갈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그림 3>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방식에서 통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아버지-자녀 관계에서 의존성이 낮은 반면, 미국에서는 통제가 낮은 집단보다 통제가 높은 집단에서 의존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 아버지의 온정과 통제 차원에 따른 아버지-유아관계의 차이

연구대상	아버지-유아관계		친 밀 평균(표준편차)	의 존 평균(표준편차)	갈 등 평균(표준편차)
미국 아버지	온 정	높은 집단	4.11(.37)	2.51(.61)	2.26(.61)
		낮은 집단	3.74(.25)	2.39(.45)	2.33(.35)
	t 값		3.498***	.691	-.396
	통 제	높은 집단	4.01(.38)	2.61(.62)	2.40(.59)
		낮은 집단	4.03(.37)	2.37(.49)	2.21(.49)
	t 값		-.164	1.731	1.445
한국 아버지	온 정	높은 집단	3.79(.43)	2.54(.58)	1.86(.44)
		낮은 집단	3.98(.43)	2.90(.52)	2.04(.49)
	t 값		-1.479	-2.304*	-1.308
	통 제	높은 집단	3.89(.44)	2.71(.65)	1.90(.45)
		낮은 집단	3.94(.48)	2.92(.39)	2.16(.45)
	t 값		-.398	-1.328	-2.016*

\* p<.05 \*\* p<.01 \*\*\* p<.001

이상을 종합하면 미국문화에서는 양육방식의 온정 차원이 자녀와의 친밀감을 높이는 기능을 하며, 한국문화에서는 통제적인 양육방식이 부모-자녀관계에서 갈등을 낮추는 긍정적 훈육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5.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과 유아-아버지 관계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책임감이 아버지-자녀 관계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표 8>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아버지-자녀 관계 중 친밀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갈등영역과는 모두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아버지가 자녀 양육의 발달적 지지, 돌보기, 함께하기, 그리고 학부모로서의 역할 참여를 많이 할수록 아버지와 자녀의 갈등은 낮았다. 의존성영역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돌보기와 정적인 관계를 보여 아버지가 자녀의 돌보기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의존성은

높았다. 또한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자원 제공자로서의 책임감은 아버지-자녀 관계 중

의존성과 정적 상관을 보여, 아버지의 책임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의존성은 높았다.

〈표 8〉 생산적인 아버지노릇과 유아-아버지 관계 간의 상관관계

구 분		유아 - 아버지 관계		
		친 밀	갈 등	의 존
양육참여활동	발달적지지	-.044	-.332**	.166
	돌보기	-.088	-.208*	.234**
	함께하기	.008	-.265**	.170
	학부모역할	.087	-.333**	.195
책임감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	.168	-.078	.263**

\* p<.05 \*\* p<.01 \*\*\* p<.001

#### IV. 결과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양육에 있어서 생산적인 아버지노릇과 양육방식이 차이가 있는지, 또한 Baumrind의 모델에 따른 온정과 통제 차원에서의 양육 방식과 유아-아버지관계와의 관련성이 두 나라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아버지는 미국 아버지보다 자녀의 발달적 지지, 자녀 돌보기, 자녀와 함께 하기 등 양육활동에 참여가 높았으며 유아교육기관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육아에 동참하지 않는 아버지 사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강욱(2001)이나 아버지가 자녀의 실생활에 시간을 내어 직접 참여함으로써 아버지의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다는 정순화·김시혜(1996)의 주장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예측해주는 변인 중의 하나는 아버지가 성장했던 가족과의 경험이다.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이 자녀 양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패러다임으로 설명된다(Pruett, 2000). 하나는 아버지가 어렸을적 받았던 아버지노릇의 장점을 모방하여 현재의 자녀양육을 한다는 이른바 ‘모델링 패러다임’으로써 Snarey(1993)의 중단연구와 Jain, Belsky와 Crnic(1996)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지만, 이후에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동기 때의 부정적 경험을 보상하기 위해 반대되는 양육을 행한다는 ‘재구성(reworking) 패러다임’이 있다. Pruett(2000)는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을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남성의 아버지 역할 재구성이 여성의 어머니 역할 재구성보다 쉽고 주장한다. 왜냐면 어머니노릇에 비해 아버

지노릇은 개인 및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오늘날 우리나라 아버지가 서구 아버지 못지 않게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아버지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자는 한국 아버지들이 아동기시절의 결핍되었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양육경험을 보상하기 위하여 자녀에의 양육에 참여하는 동기가 작용하지 않나 생각한다. 부모의 아동기 경험이 현재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이론과는 달리 한국의 아버지-자녀 애착연구(이영환, 1993)에서는 아동기의 긍정적 경험이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 연구에서 보상가설과 모델링 가설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아동기 경험에 대한 회상뿐 아니라, 아동기 경험이 부모로서의 양육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심층인터뷰를 통한 사례연구, 세대간의 변화를 보기 위한 종단 연구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아버지가 미국 아버지보다 통제 점수가 높은 반면, 온정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아버지가 한국 아버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아버지는 미국 아버지에 비해 온정보다는 통제적인 양육방식을 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아버지는 온정과 통제가 모두 높은 집단에 속하며 한국의 아버지는 미국의 아버지에 비해 특히 통제는 높지만 온정은 낮은 집단에 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Baumrind 양육유형에 비추어 해석하면 미국의 아버지는 권위적 양육방식의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한국의 아버지는 권위주의적 양육방식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분석한 이진숙

(2001) 연구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통제정도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온정차원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낮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양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전통가정교육에서 엄부자모로 상징되는 부모 간의 역할분리, 온정적인 아버지이면서도 엄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엄친(嚴親)으로 표현되는 아버지 모습(이계학, 1995)이 오늘날의 아버지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째,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의 온정과 수용이 자녀의 적응적, 부적응적 사회행동에 대해 범문화적으로 공통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천희영, 1998, 재인용). 본 연구에서 미국의 경우, 아버지의 온정이 높을 때 아버지-자녀 관계에서 친밀감이 높게 나타나 온정이 아동발달에서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서는 아버지의 온정이 높을 때 자녀의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온정 차원이 자녀의 발달에 기능적이라는 주장과 상반된다. 또한 통제도 아버지-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두 문화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통제는 미국의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한국의 경우는 통제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부모자녀관계에서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부모의 통제가 자녀를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화시키려는 부모의 노력과 '사랑'으로 이해되는 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 권위주의적 부모 통제는 지배적 또는 과다통제로 인식된다는 Triandis의 주장과 한국 문화에서는 권위주의적 실체가 항상 부정적으로 개념화되지는 않는다는 Grusec와 동료의 주장(천희영, 1998, 재인용)을 지지하는 경험적

자료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방식의 통제요인 문항은 자녀에게 행동 표준을 설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는 문항들로 구성되며, 따라서 통제란 부모의 규칙과 기대에 자녀가 따르도록 지도, 훈육하고,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하는 양육방식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 문화에서 통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아버지-자녀 관계에서 갈등이 낮았다는 본 연구 결과는 문화에 따라 통제적 양육의 의미는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는 천희영(1998) 주장을 지지하며, 부모의 통제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간에 아버지노릇의 차이와 양육방식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서 한국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역할 변화를 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양육방식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문화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이 선정되었으며 사례수도 많지 않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아버지노릇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아동기 경험이 현재의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설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업무자모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권위있는 양육방법만이 아버지노릇의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는가, 또한 자녀에게 행동 표준을 설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훈육하는 부모의 통제가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관혜(2000). 아버지역할과 자녀양육에 관한 동향 (I) :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7), 153-165.
- 곽배희·최은정(1997). 아버지에 대한 가족의 의식 구조.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아버지,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자료집, pp. 26-53.
- 유가효(1995). 한국과 미국의 자녀양육 방식의 비교 문화적 고찰과 방향모색. 세계화를 위한 "효" 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방향 모색, 한국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65-88.
- 윤기영(1998). 유치원아 어머니의 학부모 역할인식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강욱(2001). 달라지는 아버지, 달라져야 하는 아버지. 모성, 부성, 그리고 변화하는 부모의 역할,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51-70.
- 이계학(1995).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의 현재적 조명 : 효와 업무자모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3-44.
- 이영환(1993). 낮은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환·이진숙·조복희(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 : 척도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79-90.
- 이진숙(2001).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와 유아의 애착 안정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6), 41-49.
- 정순화·김시혜(1996). 동시를 통해 아동이 묘사한 아버지의 모습. 아동학회지, 17(2), 79-105.
-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천희영(1998). 권위적 부모역할 수행은 아동의 사회

- 적 적응을 위한 최선의 양육방법인가? *대한가정학회지*, 36(8), 21-37.
- Baumrind(1971). Parenting patterns of patern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 1-103.
- Baumrind(1991).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 development. In R. Lerner, A. Peterson & J. Brooks-Gunn(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pp. 746-762). N.Y. : Garland Publishing Company.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 Jain, A., Belsky, J. & Crnic, K. (1996). Beyond fathering behaviors : Types of dad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4), 431-442.
- Lamb(1995). 아버지역할과 아동발달. 김광웅·박성연(역). 서울 : 이화여대출판부.(원본발간일, 1981).
- Pianta, R., & Steinberg, M. (1991).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their kindergarten teachers. Pap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iennial Meetings, Seattle.
- Pruett, K. D. (2000). *Fatherneed : Why father care is as essential as mother care for your child*. The free press.
- Snarey, J. (1993). *How fathers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 Four-decade study*. Cambridge, MA : Havard University Press.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pp. 41-6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